





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사’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제1회 은평청년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온 구민과 함께 은평청년영화제의 첫 돌을 기쁘히 축하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관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 제대 후 영화동아리에서 친구들과 만든 '18분짜리 단편영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화의 세계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호기롭게 제작한 장편영화는 흥행은커녕 비평적으로도 썰렁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때 청년은 '내가 왜 이런 영화를 찍었을까?'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본인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장하세요!”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청년과 영화, 두 단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렇기에 그 누구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영화를 만들지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번 은평청년영화제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북돋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영화를 세상을 바라보는 창(窓)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만든 창 너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때론 따뜻하고, 때론 차갑고, 때론 슬프고, 때론 행복한 청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가지 색의 상영작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미래를 앞서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 저 역시 설레는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영화인 분들과 관객들도 같은 마음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영화에는 많은 이의 꿈과 노력, 애정이 담기는 줄로 압니다. 본연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걸어온, 청년 영화인들이 선사할 목직함 감동과 여운을 앞서 마음에 담아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은평을 무대로 펼쳐질 각양각색의 영화를 소중히 관람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영화인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울러 올해 첫걸음을 내딛는 본 영화제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올해의 가을을 시작으로, 은평청년영화제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영화제가 10회, 20회를 넘어 은평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은평구에서 영화 같은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은평구청장 김미경



영화가 세상에 태어나고 곧이어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니켈로 만들어진 5센트 동전 하나만으로도 일주일간 매일 다른 일곱 개의 영화를 볼 수 있는 니켈로디언 영화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청년에게는 니켈로디언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손수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고, 청년의 사선이 담긴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를 만들고 보는 청년들이 모여 대화하는 자리가 정착된다면, 영화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평청년영화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세상에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2023년 제1회 은평청년영화제는 제작지원작을 포함해 27편의 작품을 초청해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27편의 청년 감독님과 배우님들, 그리고 제작진의 열정으로 은평청년영화제의 첫 날갯짓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영화인과 청년영화제가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며,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청년 영화인들의 도전이 은평청년영화제를 통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은평청년영화제를 기획하고 출범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은평구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 청년정책팀 직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집행위원회 진빛남 교수님과 윤주환 감독님, 원창제 감독님께서 정성을 들여 심사를 해주심에 훌륭한 작품들을 은평청년영화제 수상작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위원회에서 어떤 보상도 없이 영화제 업무 총괄을 도맡아주신 김미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청년영화제 추진단의 희생과 봉사가 은평청년영화제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끝으로 은평청년영화제를 관람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예매하여 찾아와주신 청년 영화 관객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위원장 서종현



언제부터인가 청년이란 단어는 너무 낡은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청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자리는 비좁기만 합니다. 아마도 그 원인 중 하나는 청년이란 세대 자체가 필요와 자원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 그들이 주체인 세상을 바라진 않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년이란 단어와 단편영화는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편영화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그 자리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쉬운 점은 단편영화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화라 하더라도 일단 완성되고 나면 영화제를 옮겨 다니며 소개된 후, 그저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간혹 플랫폼을 통해서 그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얻는 영화는 극히 드문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평청년영화제의 출범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이 영화제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어린 다소 젊다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영화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런 영화제에 기대하는 점은 어느 정도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존의 영화제가 갖지 못한 파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회부터 은평청년영화제는 해볼 만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1회 은평청년영화제는 출품작의 제작연도에 있어 어떤 특별한 제약을 걸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작된 지 2-3년 이내의 영화들이 주로 출품되긴 했지만, 종종 시간을 두고 다시 찾아온 반가운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의 작품들을 최근의 영화들과 함께 볼 수 있던 점은 제게도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나아가 그간 지나온 시간과 다가온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은평청년영화제가 기존의 관습과는 다른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유연한 영화제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영화를 만들고 출품해 주신 모든 감독님 및 관계자분들과 영화제의 존재 이유인 관객분들 그리고 영화제 운영을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스태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은평청년영화제가 청년에게 그리고 많은 작품들에 함께 걷는 친구 같은 영화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사위원장 전빛남



꿈을 위해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 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운영진분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사위원 윤주환



단편영화와 청년은 어찌 보면, 서로 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어떠한 주제도 담아 낼 수 있는, 대담함과 용기는, 단편 영화와 청년의 특권 아닐까요? 다양한 단편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창구가 여전히 부족한 이때, 새로운 영화제의 시작이 무엇보다 반갑고 기쁘게 다가옵니다. 이번에 첫 시작을 알리는 은평청년영화제가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심사위원 원창재



은평청년축제위원회

은평청년축제위원회(영화제추진단)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서종현
심사위원장	진빛남
심사위원	윤주환
심사위원	원창재
사무국장	김미현
홍보대사	김현지
STAFF	이루비
	권순혁
	서하영
	송민주
	조예찬

감사한 분들

센트럴파크	홍성윤
필름다빈	백다빈
	문입생
호우주의보	백선우
씨앗	전윤하
란코	최범규
	정여진
진미디어	박찬진
사단법인 날개숲	조인주

감사한 분들

——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한지원
—— EX MACHINA	박종우
—— 수능을 치려면	김선빈
——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김남석
—— 소년유랑	이루리
—— 레이업	김덕용
—— 귀신친구	장혜연
—— 건축가A	이종훈
—— 잠이 오기 전에	김재홍
—— 좋아하는 색깔	백경환
——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한동균
—— 맞담	김준형
—— 가깝지만 멀리서	박세암
—— 어떤 하루	박새연
—— 재회에게	이지우
—— 마이크로웨이브 러브	권찬영
—— 악몽	한승원
—— 스카우팅 리포트	최병권
—— 각질	문수진
—— 새벽 두시에 불을 붙여	유종석
—— 젓꼭지 3차대전	백시원
—— 가장 개인적인 레시피	김현우
—— 윤슬	김태훈
—— Fresh	이은택
—— 깨끗하고 밝은 곳	김동찬

출품해주신 모든 감독님들

섹션 소개

제작지원작

Supporting Film(SP)

손수 Handhand

최범규

RT

2023

15min



가난한 청년 커플 준형과 정은에게 갑작스런 다한증이 찾아온다.

개막작

Opening Film(OP)

여름밤 Summer Night

이지원

RT

2016

30min



청년 취업준비생 소영은 고3 수험생 민정의 과외를 하게 된다. 그러던 중 민정은 소영에게 과외시간을 바꿔줄 수 없냐는 부탁을 하게 된다.

라운드테이블 : 청년 영화의 현재와 미래

9월 10일 17:30

김미경 (은행구청장)
홍성운 (배급사 샌드윙파크 대표)
백다빈 (배급사 필름다빈 대표)
백선우 (배급사 호우주의보 대표)

전빛남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
최범규 (제작지원작 <손수> 감독)
이지원 (개막작 <여름밤> 감독)
김현지 (은평청년영화제 홍보대사)

미로 속에 빠진 우리

Loss in the Maze(LM)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GV

한지원

2022

24min

The Sea on the Day When the Magic Returns



생각만하면 뭐든 가질 수 있는 마법을 잃어버린 세진. 뭘 원하는지 떠오르지 않아 사라져버린 마법.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을 6시간 앞두고, 세진은 아빠를 구하러 지겨운 바다로 향한다.

EX MACHINA GV

EX MACHINA

박종우

2023

35min



어느 날,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을 공표한다. 심판의 날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직계가족의 죽음을 직접 목도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주변이들을 위해 스스로의 수명을 나누어주어야 한다.

수능을 치려면 GV

Zombie-Free Test Day

김선빈

2023

27min



좀비시대에도 어김없이 다가온 수능날, 오합지졸 여고생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수능장으로 간다.

GV : 미로 속에 빠진 우리

9월 10일 19:30

한지원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감독)
박종우 (<EX MACHINA> 감독)
진성찬 (<EX MACHINA> 배우)
김선빈 (<수능을 치려면> 감독)

유은아 (<수능을 치려면> 배우)
이승연 (<수능을 치려면> 배우)
안연선 (<수능을 치려면> 배우)
정유진 (<수능을 치려면> 배우)

우리가 그대로, 그 때로

As We Were, Back Then(AB)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GV

Elephant in the Dark

김남석 2022 21min



영화 촬영장의 카메라가 부서졌다. 시각장애인 우현은 청각장애인 친구 하안과 함께 도망친 범인을 찾아나선다. 두 청년 탐정은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소년유랑 GV

you know, there are ghosts under the tree

이루리 2023 14min



무더운 여름, 비인과 태호는 학교 축제 전야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칼리는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전야제가 열리는 신록 아래에 그늘 넓이만큼 어린 귀신들이 모여 있다고.

레이업 GV

Layup

김덕용 2023 20min



고등학교생 승현이 속한 민욱의 무리는 3대3 농구경기를 준비 중이다. 농구를 잘 못하던 승현은 그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점점 지쳐간다. 경기날 청년들 사이 미묘하고 불편한 갑을 관계 속에서 승현은 레이업을 성공시키고 무리에서 벗어난다.

귀신친구 GV

Ghost Friend

정혜연 2021 31min



죽은 친구 지혜의 집을 방문한 소연이 지혜의 방에서 발견한 자위기구를 숨겨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GV : 우리가 그대로, 그 때로

9월 10일 21:40

김남석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감독)
이영지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배우)
이루리 (<소년유랑> 감독)
박건희 (<소년유랑> 촬영감독)

김덕용 (<레이업> 감독)
이현중 (<레이업> 배우)
신현승 (<레이업> 배우)
정혜연 (<귀신친구> 감독)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들(1)

What Love Has Thought Us(WT)

건축가A

Architect A

이종훈 2022 25min



의뢰인의 삶에서 재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닮은 집을 짓는 건축가 A씨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건축을 포기한 채 삶을 살아간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찾아온 할머니. 할머니는 A와 그의 아내가 오래전 만든 물고기 풍경을 꺼내 들며 자신의 집을 지어줄 것을 의뢰한다.

잠이 오기 전에 GV

Before the sleep

김재홍 2022 4min



예별은 남편 용준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다.

좋아하는 색깔 GV

Favorite Color

백경환 2023 13min



미술을 전공하는 청년 동민은 전색맹을 가지고 있다. 동민은 짝사랑 중인 경준과 교감하며 좋아하는 색깔에 대한 과제를 구상한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GV

White Donkey, Natasha, and I

한동균 2021 14min



1991년 12월, 소련 붕괴 직전의 뉴욕에서 북한 스파이 진옥은 방북 후 망명 중인 남한 작가 황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수행한다.

GV :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들(1)

9월 11일 20:00

김재홍 (<잠이 오기 전에> 감독)
김예별 (<잠이 오기 전에> 배우)
김희용준 (<잠이 오기 전에> 배우)

백경환 (<좋아하는 색깔> 감독)
한동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감독)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들(2) What Love Has Thought Us(WT)

맞담 GV

Family Toast

김준형 2022 13min



모범생 딸의 가방에서 발견된 담배. 고지식한 엄마의 추궁에도 딸은 침묵을 지킨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빠는 급기야 그것이 담배 이상의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가깝지만 멀리서 GV

Seaweed soup

박세암 2022 6min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터민 청년 영란은 찜질돈을 가지고 장을 본다. 서툴지만 어딘가 따뜻한 송씨 어머니의 조리법을 흉내 내 이북식 두부밥과 미역국을 만든다.

어떤 하루 GV

One Day

박새연 2021 9min



서울 어느 공원의 물속, 오늘은 하루살이 하루와 날리가 성충이 되는 날이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하루와 날리는 서로 좋아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하루살이는 사랑(찍짓기)을 하면 곧 죽게 되기 때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들(2) What Love Has Thought Us(WT)

재희에게 GV

Yours Truly,

이지우 2023 24min



병원에 입원한 정남은 자신과 같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연수를 만난다. 병실 TV 채널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난 둘은 휴게실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며 우정을 나눈다.

마이크로웨이브 러브 GV

MICROWAVE LOVE

권찬영 2023 26min



우울한 날을 보내는 청년 소설가 지망생 지은은 우연히 전자레인지의 소리를 듣게 된다.

GV :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들(2)

9월 11일 21:50

김준형 (<맞담> 감독)
박세암 (<가깝지만 멀리서> 감독)
이하리 (<가깝지만 멀리서> 배우)

박새연 (<어떤 하루> 감독)
이지우 (<재희에게> 감독)

우리를 쫓는 그림자(1)

The Shadow Chasing Us(SC)

악몽 GV

The Nightmare

한승원 2023 19min



9살 꼬마 소녀 유진은 매일 밤 기이한 서커스단에 단원이 되어 학대당하는 악몽을 꾸다. 유진의 오빠 유호는 악몽을 꾸고 이불에 실례를 하는 유진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유호는 연약한 생각만 가득한 유진에게 전사가 되어 악몽 속 적군들을 처리하라고 조언한다.

스카우팅 리포트 GV

Scouting Report

최병권 2015 11min



동운고 야구부에 프로 스카우터가 찾아온다. 병권은 내심 기대하지만 감독은 라이벌인 성준을 돋보이게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의외로 스카우터는 과거 병권의 활약을 기억하고 성준과의 승부를 지시한다.

각질

Persona

문수진 2022 6min



페르소나에게 잠식되어 가는 과정

새벽 두시에 불을 붙여

Light It Up at 2 AM

유종석 2022 18min



1995년 화원여자기술학원. 서리는 이곳에 있었던 화재와 유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토록 불을 두려워했지만 기어코 불을 보고자 했던 소녀에 대해. 수심명에 달하는 청년 사상자를 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

GV : 우리를 쫓는 그림자(1)

9월 12일 19:50

한승원 (<악몽> 감독)

최병권 (<스카우팅 리포트> 감독)

우리를 쫓는 그림자(2)

The Shadow Chasing Us(SC)

젖꼭지 3차대전

Nipple War 3

백시원 2021 23min



방송국의 혈기왕성한(하지만 피곤에 절은) 청년 피디인 용은 노브라 연예인의 젖꼭지가 나온 방송 화면에 모자이크를 하라는 부장의 명령을 받는다.

가장 개인적인 레시피 GV

The most personal recipe

김현우 2023 9min



바쁜 청년세대의 식문화는 자극적이고 획일화된 음식으로 점철되어 있다. 딸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한 어머니의 개인적인 레시피를 통해 청년세대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밥 한 끼의 의미를 되찾는다.

윤슬 GV

Water Reflection

김태훈 2023 22min



다리를 다쳐 춤을 출 수 없는 청년 무용수는 우연히 집에서 발견한 인어 코스튬을 입어보고 스스로를 인어라고 믿게 된다.

우리를 쫓는 그림자(2)

The Shadow Chasing Us(SC)

Fresh GV

Fresh

이은택

2023

14min



폐 모델하우스에 사는 굶주린 노숙자는 기이한 힘을 가진 냉장고를 발견하게 된다. 냉장고의 힘을 깨달은 노숙자는 미친듯이 썩은 음식들을 신선한 음식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깨끗하고 밝은 곳 GV

A Clean, Well-Lighted Place

김동찬

2022

16min



어느덧 청년의 시기를 지나 주인공 중년 웨이터는 바라는 것이 많지 않다. 인생은 그저 깨끗하고 밝은 공간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만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그.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홀로 남겨졌을 때 그를 잠식하는 허무함을 주체할 수 없다.

GV : 우리를 쫓는 그림자(2)

9월 12일 21:50

김현우 (<가장 개인적인 레시피> 감독)

김태훈 (<윤슬> 감독)

채윤슬 (<윤슬> 배우)

이은택 (<Fresh> 감독)

방현웅 (<Fresh> 배우)

김동찬 (<깨끗하고 밝은 곳> 감독)

